

# 와~515야드!

29일 인천공항 제3활주로에서 열린 신인카드배 빅4 장타대회에 참가한 브리타니 린시컴, 애니카 소렌스탐, 박세리, 폴라 크리머(왼쪽부터)가 연습샷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린시컴 '활주로 장타대회' 우승

박세리 489야드 2위

“와우, 515야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타 선수 4명이 겨룬 '활주로 장타대회'의 승자는 역시 소문난 장타자 브리타니 린시컴(미국)이었다.

린시컴은 29일 인천공항이 새로 건설한 제3활주로에서 열린 인천공항-신한카드배 빅4 장타대회에서 515야드를 날려 순금 1냥짜리 우승상품을 챙겼다.

드라이브샷 평균 270.9야드로 랭킹 5위를 달리고 있고 작년에는 278.6야드로 2위에 오른 린시컴은 평소 드라이브샷 거리에서 함께 출전한 박세리(30·CJ),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 폴라 크리머(미국)를 압도해 경기 전부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장타자의 숙명인 아웃오브바운즈(OB)를 자주 내는 린시컴은 선수마다 3차례 볼을 때려 가장 멀리 날아간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는 이날 1차 시점에서 폭 60m 활주로를 벗어나는 OB를 날리는 등 고전했다.

1차 시기에서는 소렌스탐이 478야드를 때려 크리머(465야드), 박세리(440야드)를 앞섰지만 2차 시기에서는 박세

리가 489야드를 날려보내 역전 우승을 기대했다.

린시컴은 2차 시기에서도 370야드에 그쳐 시무룩한 표정이었으나 마지막 네 선수 가운데 맨 마지막에 시도한 3차 시점에서 무려 515야드를 날아가는 초장타를 뽐내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다.

박세리는 2차 시기에서 기록한 489야드로 2위에 올랐고 3차 시기에 478야드를 때려 크리머와 소렌스탐과 함께 공동 3위로 올라섰다.

### 크리머, 스킨스게임 1위

박세리(30·CJ)가 최연소 명예의 전당 입회를 축하하기 위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정상급 선수 3명을 초청해 치른 스킨스게임에서 '핑크공주' 폴라 크리머(미국)가 원맨쇼를 펼치며 1위를 차지했다. 크리머는 2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 오션코스(파72)에서 열린 '스카이72 인비테이셔널'에서 무려 스킨 13개를 따내며 총상금 1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7천600만원을 거둬 들었다.

초청자 박세리는 스킨 5개를 획득해 2천400만원의 상금을 받아 체면을 세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보스턴 파죽의 4연승... WS 우승

### 콜로라도에 4-3 승 3년만에 정상 탈환

보스턴 레드삭스가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정상을 3년 만에 탈환했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보스턴은 29일(한국시간) 콜로라도주 덴버 쿠퍼스필드에서 계속된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솔로포 2방을 앞세워 콜로라도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4-3으로 짜릿한 승리를 누아 4전 전승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밤비노의 저주’라는 명예를 벗어난 지난 2004년 8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보스턴은 3년 만에 정상에 재등극하며 명문구단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전신 보스턴 아메리칸스 시절 포함 월드시리즈 우승은 통산 7번째, 올해로 103회째를 맞은 월드시리즈에서 보스턴은 전승을 거둔 스무 번째 팀이 됐다.

2004년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에 사상 첫 3연패 후 4연승이라는 신화를 열고 여세를 몰아 4연승으로 월드시리즈까지 제패한 보스턴은 올해도 리그 챔피언십전에서 클리블랜드에 1승3패로 몰리다 3연승을 거둔 뒤 콜로라도를 4연승으로 완파하고 비슷한 행보로 추배를 들어 올렸다.

반면 1993년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까지 오른 내셔널리그 챔피언 콜로라도 로키스는 시즌 막판부터 리그 챔피언까지 22경기에서 21승1패라는 놀라운 승률로 ‘기적의 팀’으로 불렸으나 월드시리즈에서 막강 화력과 철벽 방패를 앞세운 보스턴에게 힘한번 쓰지 못하고 4연패로 무릎을 꿇었다.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이 29일 콜로라도주 덴버 쿠퍼스필드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꺾고 4전 전승으로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각 특이 병력을 이겨낸 존 레스터(보스턴·킴프종 암)와 애런 쿡(콜로라도·혈종 전이에 의한 갈비뼈 제거 수술)의 선발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 이날 경기에선 레스터가 5.2이닝 무실점 역투로 완하게 웃었고, 쿡은 6이닝 동안 3실점으로 비교적 잘 던지고도 타선 침묵으로 분위기를 삼켰다. 보스턴은 1, 3차전에서는 대승, 2, 4차전에

서는 한 점차 승리를 일궈내며 힘의 우위를 과시했다. 반면 콜로라도는 월드시리즈에서 경험 부족과 전력 열세를 절감하며 4경기에서 29점을 주고 10점을 얻는 데 머물렀다.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는 이날 홈런과 2루타에 홈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까지 펼친 로웰이 차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천금같은 홈런”

일본 언론, 이병규 극찬

“천금같은 홈런을 때려냈다.”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승리에 쐬기를 박는 2점 홈런을 때려낸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에게 일본 언론의 극찬이 쏟아졌다. 주니치소프트는 29일 자에서 2차전에서 터진 이병규의 홈런은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팀에 천금같은 홈런’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 홈런은 이병규의 일본시리즈 첫 안타였다. 정규시즌 부진도 날려보낸 일타였다’고 덧붙였다. 이병규는 지난 28일 삿포로 돔에서 열린 니혼햄 파이터스와 일본프로야구 일본시리즈 2차전에 위키수검 7번 타자로 선발출장, 팀이 4-1로 앞서던 6회 초 1사 1루에서 니혼햄의 세번째 투수 오시모토 다케히코(우완)의 시속 137km 짜리 초구를 잡아당겨 우측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날아올랐다.

전날 3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이병규가 일본시리즈에서 6번째 타석 만에 호쾌한 홈런으로 첫 안타를 장식한 것. 주니치는 이날 이병규의 홈런에 힘입어 니혼햄을 8-1로 대파하고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주니치소프트는 아울러 각고의 연구 끝에 취약했던 낮은 볼을 버리고 높은 볼을 노려진 홈런 과정도 소개했다. 이병규는 시즌 내내 낮게 떨어지는 볼에 취약했는데 일본시리즈를 앞두고 팀 수뇌진과 구단 전력분석팀의 충고와 연구 끝에 낮은 볼은 포기하고 높은 볼을 노려쳐 홈런을 터트렸다는 것.

한편 일본시리즈 3차전은 30일 주니치의 홈구장인 나고야돔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고환암 역경 딛고 4할 불꽃타

WS MVP 마이크 로웰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베테랑 타자 마이크 로웰(33)이 힘들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최고의 무대인 월드시리즈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우뚝 섰다.

로웰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퍼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3루수 겸 5번 타자로 나서 홈런 1개 등 4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 맹타로 4-3 승리를 이끌고 MVP 영예를 안았다.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돌보인 활약을 펼친 로웰이 우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로웰은 앞선 1차전에서도 3타수 1안타 1득점, 2차전 3타수 1안타 1득점 1타점, 3차전 5타수 2안타 2득점 2타점까지 합쳐 15타수 6안타(타율 0.400), 4타점, 6득점의 불꽃 화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로웰의 메이저리그 여정은 결

코 순탄치 않았다.

1999년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입문한 그는 곧바로 고환암 진단을 받아 선수 생명 중단 위기를 맞았다. 그는 다행히 수술을 받고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병마를 이겨내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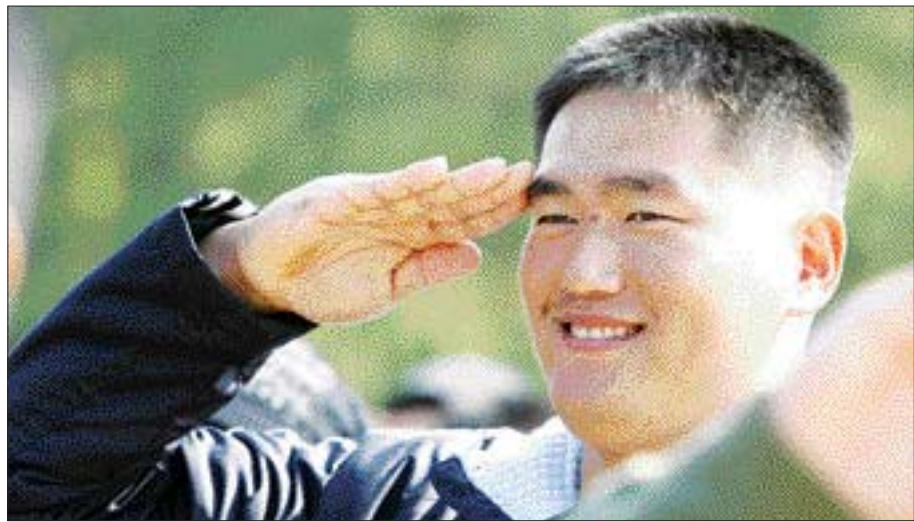
로웰은 이듬해 플로리다 말린스로 동지를 옮긴 뒤 2003년 32홈런 등 타율 0.276, 105타점으로 재기에 성공하며 그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까지 끼었으나, 2005년에는 8홈런 등 타율 0.236, 58타점의 초라한 성적표를 고개를 숙였다.

급기야 로웰은 시즌 후 조시 벡터와 끼워 넣기식으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되면서 퇴출 취급을 받았다.

그는 설움을 딛고 보스턴으로 옮긴 첫해(2006년) 20홈런 등 타율 0.284를 기록했음에도 적지 않은 연봉 때문에 끊임없는 트레이드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올 시즌 중심타선에서 보란 듯이 21홈런 등 타율 0.324, 120타점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내년 홈런왕 신고합니다”

KIA 최희섭, 31사단 입소

“충성~, 내년 홈런왕 후보로 신고합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4번 타자 최희섭(28)이 4주 기본 군사훈련을 위해 육군 제31사단에 입소했다.

29일 오후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군인 스타일로 입소식장에 모습을 드러낸 최희섭은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능률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며 입소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작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때 동료들이 너무 잘해 줘 이런 좋은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이번 혜택(병역면제)을 야구를 잘하라는 국민들의 선물을 여기고, 남은 선수생활동안 국가를 위해 더욱 활약하고 싶다”며 다부진 각오도 덧붙였다.

최희섭은 이어 “12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는데, 신부가 일본인이어서 한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며 “결혼식이 끝나면 내년 시즌에 대비한 체력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퇴소 후 일정도 밝혔다.

최희섭은 또 2008시즌 목표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홈런왕이 되는 것이고, 팀원으로는 KIA가 10번째 우승을 하는 것”이라며 “최근 감독님과 코치님이 새로 오시는 등 팀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선수단의 정신력도 높아져 내년 시즌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희섭은 인터뷰 후 훈련장을 찾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기념촬영을 함께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줬다.

이번 군사훈련에 대비해 생선회와 생고기 등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왔다는 최희섭은 “발 치수가 310mm인데 맞는 군화가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해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한편 최희섭은 지난해 WBC 대표팀 소속으로 활약했으며 대표팀의 4강 진출로 병역 혜택을 받아 4주 군사 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게 됐다. 퇴소일은 11월 26일.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